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8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추경호 · 곽대훈
주광덕 · 김석기 · 박대출
민경욱 · 김도읍 · 김성원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벌칙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5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2천만원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